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에 따른 변화와 우리가 할 일

대한소아과학회 정보 및 홍보위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공보이사

손 용 규

= Abstract =

Changes related term alteration of pediatrics and roles of pediatrician

Yong Kyu Sohn, M.D., M.B.A.

Member of Public Relations Affairs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and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Affai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Practitioners

The ultimate goal of the term alteration to pediatrics is that not only infants and children but also adolescents are subject to pediatrics. At 27, June, 2007 the term pediatrics was altered to pediatrics (children and adolescent medicine). From now on the roles of pediatricians for adolescents are needed and adolescent medicine should be reorganized in Korea. Although the numbers of children are decreased in the times of low birth rate, the efforts of pediatricians try to enlarge the range of treatment for adolescents are need. (*Korean J Pediatr* 2008 ;51 :1133-1135)

Key Words : Adolescent, Term alteration, Pediatrics

명칭변경 사유 필요성 및 당위성

대한소아과학회는 1945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의 소아와 청소년 질환 연구, 교육, 치료에 중심역할을 하여 왔으며,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발달에 관한 모든 문제 및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소아 및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상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아과”라는 명칭 하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소아과는 어린 아기들만을 돌보는 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아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태어나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대한 교육과 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명칭변경의 과정

대한소아과학회는 2003년 10월 23일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회원 대다수의 뜻으로 상정된 학회명칭 변경 안을 논의한 결과 “소

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변경 안이 참가 평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에 소아과명칭 변경 안이 상정되었고 소아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내과,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 5개 과)의 대표와 대한의학회 소속 회장 및 의원들의 여러 번의 논의 끝에 2004년 3월 19일에 대한의학회에서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이 최종 통과되고 승인되었습니다.

2005년 12월에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에 의하여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과 연계된 국회파행으로 인해 이법의 논의가 미루어오던 중에 2006년 5월초에 새로 구성된 개원내과의사회 집행회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당시 의협회장의 방해에 의해 보건복지법안소위 상정조차도 안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개정 반대 작업에 관계된 의협회장의 말 바꾸기와 부도덕성외에 여러 가지 정직치 못한 언행, 의협의 대내외적인 신뢰 실추, 무능력에 대한 문제점 등의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비상 의협 대의원총회까지 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아과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인 소아청소년과로의 전문과목 명칭개정을 이루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의협회장 압박을 통해 더 이상 방해공작을 못하게 하였고 의사협회 내에서 10여 일간의 텐트농성, 수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접촉과 편지 전달, 전체 의사들을 상대로 한 우리의 입장 알리기 운동, 의협에 대한 회부감사 요구와 의협회장 불신임을 묻는 비상 의협 대의원총회 요구, 우리의 우군확보 노력 등을 하였고 대내적으로

Address for correspondence : Yong Kyu Sohn, MD, MBA
Sohnyongkyu Pediatric Clinic, 458-1, Mangwoo-3-dong, Jungnang-ku, Seoul 131-808, Korea
Tel : +82.2-2209-0075, Fax : +82.2-2209-0109
Email : psycoros@chol.com

는 치밀하고 끈기있게 노력을 한 결과 2007년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6일 열린 제265회 국회 본회의는 소아과 개명 등을 담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아과 진료 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법(제3조 제3항 제3호)이 통과됨으로써, 2007년 6월 27일 부터 소아과의 전문과목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청소년에 대한 역할

소아청소년과 개명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소극적이었던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의학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진료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청소년의학이란

청소년의학이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바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아과학 중 하나의 전문분야입니다. 청소년기의 시기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만 10세에서 19세로 규정하여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청소년의학회(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SAM)에서는 엄격한 나이제한 없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의학의 분야

- 1)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general health care)
- 2) 사춘기와 관련된 성장과 발달의 문제
- 3) 약물중독 및 남용
- 4) 영양에 관한 문제
- 5) 성(sex)에 관련된 문제
- 6)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문제
- 7)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교육

3.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

1)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문제 및 그 해결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며 사춘기의 발달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런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 변화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청소년의학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소아에 있었던 질병이나 그 후유증이 청소년기에 나타납니다.

영아나 소아 때 있었던 질병이나 영양장애, 정신적 질환 그리고 선천적 질환들이 청소년 시기에 후유증으로 나타나거나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 때에 여러 자기 질병과 사회적, 정신적 문제점을 잘 알고 치료 및 예방을 담당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질환이나 후유증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3) 소아에서 예방교육과 청소년기의 건강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소아에서의 예방접종과 육아교육 모든 감염성 질환이나 유전적 질환의 예방과 교육 그리고 치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사명입니다. 학동기를 거쳐 청소년들은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적절한 건강교육과 성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적절히 청소년을 진료하려면 우선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청소년 진료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 의학의 전문의의 양성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기타 우리가 할 일

1. “소아청소년과”라고 말하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아청소년과란 명칭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소아과란 이름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

아청소년과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청과 대신 소아과라는 이름이 더 자주 사용된다면 우리끼리만 명칭이 바뀐 것이지 세월이 지나도 국민에게는 그냥 소아과로 불리고 인식되어지는 어색한 명칭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학회나 개원의사회 CUG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직은 “소아과”란 이름이 입에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고쳐서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청과”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언론매체에서도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인터넷 매체와 언론매체에서 아직도 소아과란 이름을 사용하는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완전히 시정되는 것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노력은 다해 소아청소년과라는 바른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진료과목명 및 간판 바꾸기

2008년 9월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공문서상 <소아과> 명칭을 모두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며 수련병원의 <소아과학교실> 명칭도 공식적으로 <소아청소년과학교실>로 바꾸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은 우리 스스로 내세운 진료영역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소아청소년과로의 개명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 소아과의원이라는 간판은 채 20%도 바뀌지 않았

다는 통계적인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은 소아과가 소아들만 이용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는 7%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우 0.5% 증가에 그쳐,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연령층의 이용 저하와 감기 환자수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층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영역권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준비에 매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참여해서 올 한 해가 법률상의 명칭이 아니라 진정하게 “소아청소년과”, “소청과”라 불리는 원년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하신 역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님 이하 많은 상임이사님들, 고문님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님 및 상임이사님들께 후배 소아청소년의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